

##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1)

- 아일랜드 판결 및 최근 기후변화현상 등 참고자료 제출 -

사 건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도현 외 18  
피청구인 1. 대한민국 국회 2. 대한민국 대통령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헌법소원 보충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헌법 음

### 1. 아일랜드 대법원의 2020. 7. 31.자 국가감축계획 파기 판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하루하루 체감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실적인 피해와 각종 재난들도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핵심요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각국의 최고법원이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밝힌 것과 같이, 네덜란드 대법원의 2019. 12. 20.자 Urgenda 사건 판결(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55~57면 및 심판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참고자료 1, 2

위 판결문 및 번역문)이 그 중 하나입니다.

한편, 아일랜드 대법원도 최근인 2020. 7. 31. 아일랜드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관련 법률인 ‘2015년 기후행동 및 저탄소개발법(Climute Action and Low Carbon Development Act, 2015)’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수립한 ‘국가감축계획(National Mitigation Plan)’에 대하여, 국제사회와 기후과학계가 지적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위 ‘국가감축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는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본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참고자료 3의 1, 2 아일랜드 대법원 2020. 7. 31.자 판결문 및 국문 번역문). 이에 청구인들은 위 아일랜드 대법원 판결문 및 국문 번역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 2. 최근의 심각한 기후재난 상황 및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청구인들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최근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을 통해 한층 더 현실화된 기후변화의 위기와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장마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무려 ‘54일’(6월 24일~8월 16일) 간 이어지며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하였고, 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라는 것이 기상청의 공식 발표 내용입니다(본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참고자료 4 기상청 2020. 9. 8.자 보도자료 제4~6면 참조).

세계적으로도 호주, 미국 서부, 시베리아, 아마존 등지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

규모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상청이 집계한 올 여름철 전세계의 폭염, 산불, 폭풍, 폭우, 홍수 등의 이상기후 현상과 기상재해 사례만도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 규모와 내용도 심각한 수준입니다(참고자료 4 기상청 2020. 9. 8.자 보도자료 제10~12면 “여름철 전 세계 이상기후 현상과 기상재해” 참조).

이에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목전에 닥친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 대폭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보도하는 언론보도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참고자료 5의 1 2020. 8. 16.자 연합뉴스 기사 - “기후변화, 홍수에 더해 폭염에도 영향...근본 해결책 필요”,<sup>1)</sup> 참고자료 5의 2 2020. 9. 17.자 KBS 기사 -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 경신... 유럽 ‘기후위기, 코로나 19만큼 심각’”<sup>2)</sup>), 이에 따라 이제 ‘온실가스 누적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기후과학계의 정설’을 넘어서 ‘일반인들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역임한 대표적 기후과학자인 조천호 박사 등 국내의 기후과학자들도 우리나라의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과 대폭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이 부재한 상태임을 질타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6의 1 2020. 9. 5.자 미디어 오늘 기사-“기후위기, 계산 불가능한, 문명 붕괴 위험”(조천호 박사 ‘참여사회 인터뷰’),<sup>3)</sup> 참고자료 6의 2 2020. 9. 23.자 한겨레 기사 - “한국은 ‘기후 악당’...에너지 전환 늦추면 경제마저 망할 것”(조천호 박사 인터뷰 기사)<sup>4)</sup>).

1)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6024700530?input=1195m>

2)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02580?cde=news\\_edit](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02580?cde=news_edit)

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084>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파죽지세로 증가하고 있고, 국립기상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 지구대기 감시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의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417.9ppm)는 전 지구 평균 농도(409.8ppm)보다도 8.1ppm이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참고자료 6의 2 2020. 9. 23.자 한겨레 기사). 우리나라가 전세계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8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참고자료 6의 2 2020. 9. 23.자 한겨레 기사).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파국의 ‘책임’과 그에 따른 ‘피해’를 동시에 떠안고 있는 국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 3.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

위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 상황과, 이에 따라 청구인들을 비롯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입게 되는 생명권 및 환경권 등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나날이 그 규모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령 조항 등에 대해 신속히 그 위헌성을 선언하여 헌법적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큼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및 대통령은 2020. 3.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된 지 무려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심리가 지연될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이에 청구인 청

4)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3266.html>

소년들로서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답변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지연의 다른 한 모습이 아닌가 무척 걱정이 됩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사정들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심리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 대한민국 대통령 및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의 답변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첨 부 서 류

- |              |   |
|--------------|---|
| 1. 참고자료 3의 1 | 아일랜드 대법원 2020. 7. 31.자 판결문(영문본)   |
| 1. 참고자료 3의 2 | 위 판결문의 국문 번역문   |
| 1. 참고자료 4    | 기상청 2020. 9. 8.자 보도자료   |
| 1. 참고자료 5의 1 | 2020. 8. 16.자 연합뉴스 기사 - “기후변화, 홍수에 더해 폭염에도 영향...근본 해결책 필요”              |
| 1. 참고자료 5의 2 | 2020. 9. 17.자 KBS 기사 -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 경신... 유럽 ‘기후위기, 코로나 19만큼 심각’” |
| 1. 참고자료 6의 1 | 2020. 9. 5.자 미디어 오늘 기사 - “기후위기, 계산 불가능한, 문명 붕괴 위험”(조천호 박사 ‘참여사회         |

인터뷰)

1. 참고자료 6의 2

2020. 9. 23.자 한겨레 기사 - “한국은 ‘기후 악당’...  
에너지 전환 늦추면 경제마저 망할 것”(조천호 박사  
인터뷰 기사)

2020. 9. 28.

위 청구인들 대리인

에스앤엘파트너스

변호사 신 영 무

변호사 이 근 웅

변호사 성 기 문

변호사 이 병 주

변호사 김 민 경

변호사 호 수 연

변호사 김 주 진

변호사 윤 세 종

변호사 김 지 은

변호사 박 지 혜

헌법재판소 귀중